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열어

오공환 기자 | 승인 2026.01.23 17:02 | □ 호수 1046

임대수탁 수수료 감면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사업비 2조 3천289억 원... 농지 매입 물량 대폭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조정옥)가 21일과 23일 순흥면 행정복지센터와 단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이장과 농업인,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농지은행사업 제도와 개선 내용을 사업별로 안내했다. 특히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임대수탁 수수료 전액 감면 ▲사용대차 수수료 10만 원 전액 감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과수 품목 전환 허용 ▲경영화생사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영농 단절 시 농지연금 예외적 가입 허용 등이 있다.

올해 농지은행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5% 증가한 2조 3천289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공공농지매입사업의 매입 물량이 전년 2천500ha에서 올해 4천200ha로 1.7배 확대돼 더 많은 농업인과 은퇴농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정옥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지은행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며 “용수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공환 기자 okh7303@hanmail.net